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이 아 랍[†]

김 남 재

덕성여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외상사건 노출에 의한 아동, 청소년기의 복합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여 경계선 성격특성의 원인으로서의 복합외상경험을 검증하고, 두 변인 사이에서 자기개념의 역할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650명 여대생에게 복합외상경험과 자기개념, 경계선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복합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인관계에서 자기개념의 중재효과가 검증되었고, 낮은 자기개념 집단이 높은 자기개념 집단보다 경계선 성격특성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델 접근법으로 두 변인 사이의 매개효과를 알아 보았는데, 자기개념은 두 변인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져 복합외상경험이 자기개념을 거쳐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있음이 시사되었다. 이 연구는 경계선 성격특성의 원인으로서 복합외상경험을 검증함과 동시에 두 변인 사이에서 자기개념의 역할을 밝혀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임상집단에서의 치료방법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고 비 임상 집단에서는 예방적 개입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주요어 : 경계선 성격장애, 복합외상, 자기개념, 중재효과, 매개효과

* 이 논문은 이아람의 2010년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논문을 바탕으로 하였음.

† 교신저자 : 이아람,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132-714.)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덕우당 106호
E-mail: flourish02@naver.com

‘경계선’이라는 용어는 Stern(1938)이 표준적인 “신경증” 또는 “정신증”의 의학적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고전적인 정신분석으로 효과를 얻지 못하는 외래환자 집단을 기술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몇몇 이론가들은 정신분열증과 비 정신분열증 사이(Noble, 1951; Ekstein, 1955) 그리고 정상과 비 정상 사이(Rado, 1956)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보았고, 몇 년이 지나서 ‘경계선’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정신분석적 장면에서 성격의 특징 구조와 성격 기능의 심각도에서 중간 수준을 의미하는 말로 진화되었다(Linehan, 1993). 현재 임상 양상과 진단적 특징에 대해 DSM-IV-TR(2000)에서는 경계선적 성격장애는 대인관계, 자아상 및 정동에서의 불안정성, 심한 충동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특징적 양상은 초기 성인기에 시작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정의하고 있다. Gunderson(1984)은 그 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강렬하고 불안정한 대인관계, 조종하려는 목적의 자살 시도, 불안정한 자기감, 부정적인 정서, 자아 비동조적(ego-dystonic) 정신병리 경험, 충동성, 능력에 비해 낮은 성취를 경계선 성격 장애의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고, 아울러 장기간 지속되어 온 충동성(마약사용, 자해행위), 불안정하고 격렬한 대인관계(상대방에 대한 이상화와 평가절하), 자아동일성 장애(자신에 대한 회의), 부적절하고 강렬한 분노(상대방에 대한 미움), 감정의 불안정(심한 불안발작), 자해행위(면도날로 자해)등을 설명하고 있다(권윤주, 1995에서 재인용). 이러한 경계선 성격장애는 성격장애 중에서 입원과 외래 장면에서 가장 흔히 진단된다고 알려져 있다(Widiger & Trull, 1993).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비율은 치료환경의 강도에 따라 일반

적으로 증가하는데, 외래 시설에서는 10%미만이나 전문화된 입원시설에서는 50%이상에 이르기도 하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환자들의 약 10%가 자살로 사망할 정도로 개인의 삶을 크게 손상시킬 위험이 높은 장애이다(Paris, 1993). 이와 함께 경계선 성격 장애는 정신분열증에 비할 만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고(Linehan & Heard, 1990), 친지나 친구, 동료들에게 큰 부담이 되며 자녀에게 정신 병리를 유발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Weiss, Welkowitz, Feldman, Vogel, Heyman, & Paris, 1996)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계선 성격 장애의 이해와 치료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병인론에 대한 연구(Trull, 2001; Helgeland, Torgersen, 2004; Bradley, JeneiEdM, Westen, 2005)는 많은 편이다. 하지만 변인 간의 심리적 기제를 밝히거나, 경계선 성격 장애의 발달 과정을 밝힌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장애의 병인론에 대해 살펴본 후 심리적 기제의 발달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경계선 성격 장애에 대한 주요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아동기 외상 경험이다.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은 흔히 어린 시절에 충격적인 외상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Ogata, Silk, Goodrich, Lohr, Westen, & Hill, 1990; Zanarini, Gunderson, Mariano, Schwartz, & Frankenburg, 1989),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아동기 학대, 특히 성적 학대의 유병율은 60~80%로 추정되며(Herman et al., 1989; Ogata et al., 1990) 경계선 정신 병리의 심각도는 아동기 성적 학대의 심각도와 관련이 있었다(Silk, Lee, Hill & Lohr, 1995; zanarini et al., 2002).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25%~71%가 신체적 학대를 보고하였고(Herman, Perry, & van der

Kolk, 1989; Ogata et al., 1990; Shearer, Peters, Quaytman, & Ogden, 1990; Westen, Ludolph, Misle, ruffins, & block, 1990; zanarini, Gunderson, Frankenburg et al., 1989) 아동기 학대와 방임이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임상적 심각도의 지표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최윤경, 2005). 이와 함께 애착이론가들에 따르면, 유아와 양육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였는가에 따라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타인이 반응적이고 접근 가능한 존재인지에 대한 표상이 형성된다고 한다(한수정, 신민섭, 김중술, 권석만 2002).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양육자에 대해 언제나 다가갈 수 있고, 반응적이며 도와주는 존재로서의 대상표상을 형성하고,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는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표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생애 초기 어머니(또는 주 양육자)가 부재하였거나, 주 양육자가 자주 바뀌는 등 유아에게 안전감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환경에서 성장하였을 경우, 버림받음이나 거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자리 잡게 되는데,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의 특징적인 양상과도 일맥상통한다(김윤숙, 2005에서 재인용). 이와 유사하게 Kernberg(1975)는 경계선 성격장애는 Mahler(1952)의 분리-개별화(separation-individuation) 단계 중 재접근(reapprochement)시기에 고착된 결과로, 이 기간 동안 아동이 엄마와의 관계에서 안정되게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하지 못할 경우,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심한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때 대상 항상성 발달에 실패하고, 보살피주는 사람이 사라지고 자신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재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기에 안정애착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부모와의 분리 경험 자체가 심각한 외상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적절한 애정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을 것을 보인다. 이와 함께 단지 부모의 폭력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불안과 공포, 위협감, 분노, 양가감정 등을 경험할 수 있다.(최윤경, 2005). 이렇듯, 부적절한 애착경험이나 신체,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성적 학대의 외상 경험들은 단순 외상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복적(repeated)으로 지속(prolonged)되면서 대인적 폭력(interpersonal violence)의 성격을 띤 외상경험’을 복합외상(Complex Trauma)이라고 하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동폭력피해, 포로경험, 난민경험, 성매매나 인신매매(안현희, 2007) 성적, 정서적 신체적 아동학대, 가정폭력피해, 죽음이나 폭력을 목격 등(고나래, 2008)을 들 수 있다. 외상 연구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외상을 복합외상(Complex Trauma), Type II 외상(Terr, 1992), 발달적 외상(Developmental trauma, van der Kolk, 2005)또는 애착외상(attachment trauma, Allen, 2001)과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면서 특별히 주목해왔다(안현희, 2007). Herman(1992)은 C-PTSD가 아동기 학대나 가정 폭력, 장기화된 전투 경험과 같이 반복적으로 지속된 외상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며 복합외상 경험자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는 위에서 정서, 인지, 성격, 대상 등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 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Herman(1992)은 이후 외상경험자들에게 나타나는 성격적 변화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정서 조절이 어렵다거나, 자기-파괴적 또

는 충동적 행동을 나타내거나, 대인관계가 손상되는 등,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들과 유사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고, 반복되는 신체화 증상, 우울증상, 해리증상이 이에 포함된다고 한다.(Taylor, Asmundson, & Carleton, 2006).

하지만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했다고 해서 곧 경계선 성격장애가 발현되는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외상 그 자체보다는 외상의 처리 방식과 결부된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Arntz, 1994; Zanarini, 2000). 그렇다면 경계선 성격특성을 발현시키고 아니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Lopez & Heffer(1998)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은 성인기의 자기 개념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으며, 성 학대를 경험한 일반 여성을 상대로 조사 연구들에 의하면, 성적 학대 경험이 낮은 자아 존중감과 높은 우울증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Wind & Silvern, 1992) 여기서 우리는 외상 경험에 따라 자기 개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안현의(2007)의 연구에서 복합 외상 증상이 단순 외상과는 달리 표면적인 불안 증상들로 나타나기 보다는 정서적, 행동적, 대인관계 기능을 관장하는 개인의 심층적인 성격구조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것은 복합 외상 경험이 자기(self) 타인(others), 외부 세계(world)에 대해 왜곡된 내적 표상으로 각인되고, 자신이 갖고 있던 적응적인 도식마저 부적응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거나 적응적인 생성을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나래, 2008). 또한 어린 시절의 중요한 타인들로부터의 정서적인 철수나 충격적 외상을 경험한 아이는 부모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통합시키지 못한 채 분리, 부인, 투사적 동일시와 같이 표상을 왜곡하는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만든

다. 즉 가학적이고 학대하는 부모는 이상화된 환상속의 부모로부터 분리되며, 학대당한 아이는 자신에 대한 표상을 나쁜 것 혹은 강력 한 것으로 왜곡하여 발달시키게 된다. 이렇듯 아동 청소년기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외상은 자기 개념을 왜곡시키고 결국 ‘자신은 결합이 많아서 사랑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도식’ ‘타인에게 지지받거나 수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도식’ 등을 발달시키고(김윤숙, 2005) 전반적인 자아손상과 성격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자기개념은 복합외상경험에 대한 영향을 높이는 인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계선 성격특성의 원인으로 외상사건의 노출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외상사건의 노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외상사건을 아동, 청소년기 때부터 지속되고 반복되어온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및 방임으로 정의내리고 경계선 성격특성의 원인으로서는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려한다.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를 연구하는 것 역시 몇 가지 이유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성격장애와 관련 있는 성격특성은 임상집단 뿐 아니라 비 임상 집단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Trull, 1995).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는 일반 인구 중에서도 유병률이 약 2%로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APA, 1994), 청년기 후기나 성인기 초기에 나타나고 있어, 실제 유병률은 젊은 성인에서 가장 높다.(Stone, 1990). 홍상황과 김영환(1998)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높은 대학생 집단이 완전

한 증후군으로 발전되기 전의 경계범위에 해당되는 우울과 정신병리를 나타냈다고 보고하면서, 이들을 임상집단과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는 위협군으로 볼 수 있으며 예방적 개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DSM-IV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75%가 여성에게서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이 아동, 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간의 관계를 중재, 매개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중재효과와 매개효과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Baron & Kenny(1986)는 심리학 연구에서 중재변인과 매개변인이 혼동되어 사용되어 온 것을 지적하면서 중재와 매개변인간의 차이를 잘 구분하고 있다.

중재모델이란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의 방향이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변인을 포함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변량분석에서는 독립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인에 효과를 미치는 변인을 중재변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면 중재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의 양이 중재변인의 수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중재변인은 종속변인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고, 두 변인 혹은 다른 많은 변인 사이의 관계를 규정짓는 조건을 나타낸다. 즉, 예를 들어 자기개념의 중재효과는 경계선 성격특성을 일으키는데 복합외상경험의 영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개념이 복합외상경험과 상호작용하여 경계선 성격특성에 대한 효과가 유의미하면 자기개념의 중재효과는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매개모델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제 3의 변인이 두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델을 말한다. 이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소위 매개변인이라는 제3변인에 의해 중간의 단계 혹은 과정을 통하여 단지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주는 것이다. 매개변인은 독립변인의 결과로서 그리고 종속변인의 원인으로서 동시에 생각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매개변인 혹은 매개자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둘째, 가정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셋째,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와 가정된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를 통제되었을 때 이전에 유의미하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경우를 완전 매개(full mediation)라고 하고 만일 경로계수가 감소하기는 하나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부분 매개(part mediation)관계가 성립된다고 한다. 즉,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는 복합외상경험이 자기개념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자기개념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복합외상경험이 자기개념을 통해 경계선 성격특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매개변인에 대한 접근은 어떤 효과가 어떻게 그리고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기개념이 경계선 성격 특성에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보다 역동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Baron & Kenny, 1986). 이러한 자기개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경계선 성격특성의 자기개념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경계선 성격특성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시사나 함의를 지

닐 수 있으며 특히 매개효과가 나타나면 치료 적 중재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Culp & Beach,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합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이러한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 특성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재효과와 매개효과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복합외상경험에 따라 경계선 성격 특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자기개념이 아동, 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과 상호작용하여 성인기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자기개념이 아동, 청소년기의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방 법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4년제 D대와 S대에 재학 중인 여대생 800명을 대상으로 복합외상경험 질문지, 자기개념 질문지,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를 묶은 질문지를 심리학 관련 수업에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수거된 691부 중 각각의 척도에 한 문항이라도 무응답, 중복 응답한 설문지나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650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자료에서(N=650)에서 피험자들의 연령은 만18세부터 28세까지였으며 평균연령은 20.7세였다.

측정 도구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PAI-BOR)는 Morey (1991)가 성인의 성격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객관적 자기보고형 질문지에서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 특징인 분노통제, 격렬한(intense)대인관계, 정체감 및 자기 가치와 관련된 문제, 자기 손상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충동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된 것이다.

Morey(1991)는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단 기준을 요인분석하거나 군집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정체감 문제, 대인관계문제, 자기 손상, 충동성으로 나누어진다는 선행연구결과들(Grinker, Werble, & Drye, 1968.; Hurt & Clarkin, 1990; Morey, 1988)을 근거로 정서적 불안정(BOR-A), 정체감 문제(BOR-I), 부정적 대인관계(BOR-N), 그리고 자기 손상(BOR-S)이라는 네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은주 등(1999)의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PAI-BOR)의 타당화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권보배(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재인용하였다. 총 24문항이고, 각 문항은 0에서 3까지(0=전혀 그렇지 않다, 1=약간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3=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경계선 성격특성 점수는 각 문항의 척도 값의 합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징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전체 점수범위는 0-72점으로, 국내 타당화 연구에 따르면 원점수가 39점 이상인 집단은 완전한 증후군 수준으로 발전되기 전의 경계범위에 해당하는 정신 병리를 나타냈으며, 임상집단과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는 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홍상환, 김영환, 1998).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2 였으며 Morey(1991)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7~.91로 나타났고, Trull(1995)의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냈다. 국내에서는 홍상환, 김영환(1998)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84였고, 6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였다.

자기개념 질문지(Self-Concept Scale; SCS)

이훈진(1997)이 제작한 척도로 자기의 특징 하위 속성에 대한 신념을 측정한다. 신체, 도덕, 성격, 가정, 사회, 능력 측면의 자기 개념을 각각 5문항씩 총 30문항에 대해 7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7이며 이훈진(1997)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92,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다.

외상적 선행사건 질문지-자기보고식

아동기 외상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van der kolk(1996)가 개발한 ‘외상 경험 척도’(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를 고나래(2008)가 번역하여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고, 복합외상에 부합하는 요인으로 선정된 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 43문항으로 문항마다 각각의 발달 단계(0-6세, 7-12세, 13-18세, 성인)에 대한 경험을 묻고 있으며, 동시에 단계별 외상의 빈도와 강도를 묻기 위해 0에서 3(0=전혀 그렇지 않았다, 1=약간 그랬다, 2=다소 그랬다, 3=자주 그랬다.)점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유형으로는 유능감(competence), 안전감(safety), 방임(neglect),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과의 분리(separation), 가족 내

비밀(secrets),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정서적 학대, 가정폭력 목격, 다른 외상경험(자연재해, 교통사고), 술과 약물남용의 노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외상적 선행사건 질문지에서 고나래(2008)가 요인분석하여 복합외상의 정의에 맞는 요인으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요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도 복합외상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함으로 고나래(2008)가 선정한 요인 선택하였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빈번하고 심각한 외상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2였고, 권보배(2002) 신뢰도 .82 이며, 고나래(2008)의 신뢰도는 .70였다.

결 과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나이, 학년, 계열)과 각 연구 변인(복합외상경험, 자기개념, 경계선 성격특성)에 대해 SPSS/win 16.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pearson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복합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자기개념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4.0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델 접근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변인간 상관

복합외상경험과 자기개념,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를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복합외상경험과 자기개념은 $-.363(p<.01)$ 으로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복합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은 $.433(p<.01)$ 의 정적

표 1. 측정 변인 간 상관(N=650)

변수	복합외상경험	자기개념	경계선 성격특성
복합외상경험	-		
자기개념	-.363**	-	
경계선 성격특성	.433**	-.475**	-

** $p < .01$

상관을 보였고 자기개념과 경계선 특성 간에도 $-.475(p < .01)$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의 중재효과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의 중재효과를 살펴 보기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한 결과 복합외상경험에 따라 경계선 성격특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648)=149.814, p < .001$). 이에 복합외상경험에 따라 경계선 성격특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또한 자기개념에 따른 경계선 성격특성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F(1.648)=188.536, p < .001$). 마지막으로 복합외상경험과 자기개념간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개념이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간의 관계를 중재할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설2도 지지되었으며 자기개념이 복합외상경험과 상호작용하여 경계선 성격특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중재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중재변인의 효과와 방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복합외상경험의 많고 적음과 자기개념의 높고 낮음의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자기개념과 복합외상경험 수준을 평균값을 기준으로 저, 고로 나누어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자기개념이 낮은 사람이 복합외상경험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합외상경험이 높은 상황에서 자기개념이 낮은 사람이 자기개념이 높은 사람보다 경계선 성격특성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어 자기개념이 중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재효과의 방향을 알아보는데 자기개념의

표 2. 자기개념의 중재효과

측정변인	R ²	ΔR ²	df1	df2	β	F
복합외상경험	.188	.188	1	648	.433	149.814***
자기개념	.255	.255	1	648	-.475	188.536***
복합외상경험*자기개념	.145	.144	1	648	.381	110.166***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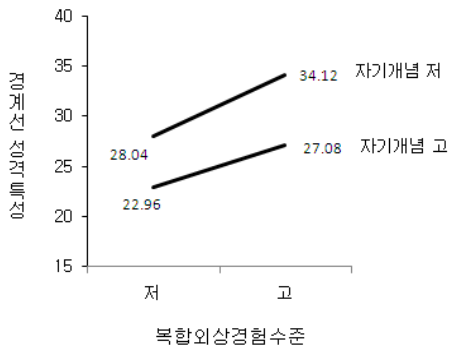


그림 1. 복합외상경험과 자기개념의 상호작용

높고 낮음을 설정하기 위해 평균값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었고 이후 각각의 집단과 복합외상경험, 경계선 성격특성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기개념이 낮은 집단은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자기개념이 높은 집단은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에 부적의 상관을 보였다(표 3). 종합하면, 자기개념이 복합외상경험과 상호작용하여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는 자기개념이 낮은 사람일수록 복합외상경험에 영향을 받아 경계선 성격특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방향은 낮은 자기개념이 집단과 복합외상경험, 경계선 성격특성간의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곧 자기개념이 높은 사람은 복합외상경험이 많아도 경계선 성격특성의 발현을 낮출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3. 자기개념의 수준에 따른 변인 간 상관

	자기개념 저	자기개념 고
복합외상경험	.322**	-.322**
경계선 성격특성	.391**	-.391**

** $p < .01$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의 매개효과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 접근법을 사용하였으며 선행연구에 따라 각 하위 척도의 점수를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아동, 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의 측정변인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고, 자기개념의 측정변인은 신체, 도덕, 성격, 가정, 사회, 능력부분이며, 경계선 성격특성의 측정변인은 정서적 불안정, 정체감 문제, 부정적 대인관계, 자기 손상이다. 측정변인의 1~13은 표 4와 같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의 검증에 사용된 13개의 측정변인의 상관과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5에 제시되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 가설적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이 경험적 자료와 잘 맞는지 알아보는 적

표 4. 측정변인

	측정변인
1	신체적 학대
2	성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및 방임
4	신체적 자기
5	도덕적 자기
6	성격적 자기
7	가정적 자기
8	사회적 자기
9	능력적 자기
10	정서적 불안정
11	정체감 문제
12	부정적 대인관계
13	자기 손상

표 5.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												
2	.303**	-											
3	.611**	.306**	-										
4	-.086*	-.053	-.222**	-									
5	-.230	.005	-.136**	.205**	-								
6	-.200**	-.139**	-.358**	.385**	.338**	-							
7	-.409**	-.201**	-.596**	.252**	.195**	.418**	-						
8	-.074**	-.083**	-.193**	.389**	.299**	.601**	.286**	-					
9	-.122**	-.059	-.226**	.405**	.323**	.559**	.275**	.580**	-				
10	.353**	.268**	.351**	-.230**	-.215**	-.418**	-.303**	-.171**	-.235**	-			
11	.239**	.118**	.238**	-.210**	-.164**	-.402**	-.249**	-.153**	-.261**	.518**	-		
12	.304**	.211**	.365**	-.257**	-.198**	-.504**	-.348**	-.283**	-.271**	.500**	.538**	-	
13	.153**	.134**	.255**	-.116**	-.209**	-.333**	-.239**	-.068	-.196**	.380**	.340**	.314**	-
M	1.70	.38	2.82	21.65	23.97	25.19	28.55	24.73	23.90	7.17	8.38	6.57	5.18
SD	2.56	1.09	3.7	4.43	5.60	4.68	5.47	5.61	5.37	3.51	2.73	2.72	3.16

* $p < .05$, ** $p < .01$

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값과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모형의 간명성을 잘 반영해 준다고 알려진 적합도 지수 RMSEA, TLI, CFI, GHI 등(홍세희, 2000)을 중심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χ^2 값에 의해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χ^2 값에 의한 모형 적합도는 p 값이 .05 이상일 때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분석 결과 $\chi^2=445.139$ $p=.000$ 으로 유의미하여 연구자가 가정한 연구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 값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모형과 자료와의 근소한 차이에 대해서도 심각한 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χ^2 결과만을 가지고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되고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이순목, 1990).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은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부합도를 나타내는 데(Browne & Cudeck, 1993) 분석결과 .098로 보통 적합도를 나타내었고, .9이상인 기준인 적합도 지수들도 GFI=.909, TLI=.821, NFI=.839, CFI=.858로 기준 값에 적합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수들도 있어 적합한 모형을 위해 AMOS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수정지표(modification indices)에 따라 수정지표가 높게 나온 측정변인인 7번, 8번을 수정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chi^2=143.749$ $p=.000$ 으로 여전히 유의미하긴 하지만 GFI=.963, TLI=.928,

표 6. 연구모형과 수정된 연구모형의 χ^2 값과 적합도 지수

	χ^2	df	p	RMSEA	GFI	TLI	NFI	CFI
기준값				<.05/.08	>.9	>.9	>.9	>.9
연구모형	445.139	62	.000	.098	.909	.821	.839	.858
수정된 연구모형	143.749	41	.000	.062	.963	.928	.927	.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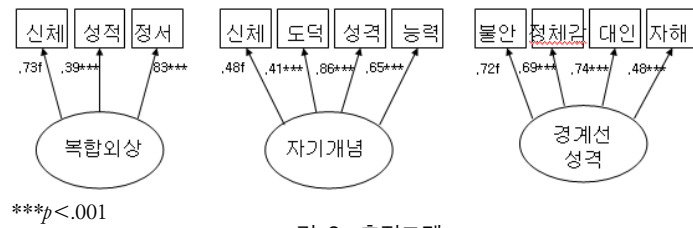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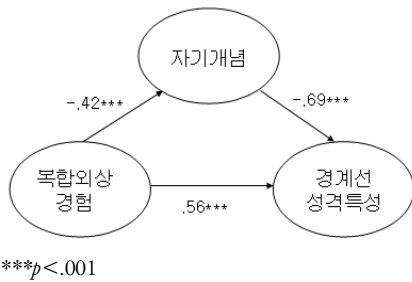


그림 3. 자기개념의 매개효과

NFI=.927, CFI=.947로 전반적인 부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수정된 측정모형의 χ^2 값과 적합도 지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또한 모든 측정변인의 신뢰도가 .001수준에서 유의미하여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신뢰롭게 측정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는 <그림 2>와 같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수정된 연구 모형을 통해 경로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복합외상경험이 자기개념으로 가는 경로($\beta=-.42, p<.001$), 자기개념에서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가는 경로($\beta=-.69, p<.001$)가 유의미하여 복합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자기개념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그러나 복합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가는 경로($\beta=.56, p<.001$)도 유의미하여 자기개념이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간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지 못하고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외상경험이 자기개념을 거쳐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기의 복합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간의 관계에서의 자기개념의 역할 즉, 중재효과와 매개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먼저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복합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 청소년기의 복합외상경험은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며(Herman, 1992) 경계선 성격장애와 유사한 특징들을 나타낸다(Taylor, Asmundson, & Carleton, 2006)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경계선 성격특성의 원인으로서 복합외상경험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여 두 변인관계에서 자기개념의 중재효과가 검증되었다. 특히 낮은 자기개념 집단은 복합외상경험과 상호작용하여 경계선 성격특성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 접근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두 변인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의 매개효과에 검증되었다. 즉, 복합외상경험은 자기개념을 부정적으로 만들며 부정적인 자기개념이 경계선 성격특성을 만든다는 점이 검증된 것이다. 이는 복합외상경험이 자기개념을 거쳐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경계선 성격특성의 원인으로서 복합외상경험이 존재하며 복합외상경험이 자기개념의 수준에 따라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주고(중재효과) 또한 자기개념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부분매개(매개효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아동기 외상 경험에 따른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 결과들은 많았으나(Ogata, Silk, Goodrich, Lohr, Westen,

& Hill, 1990; Zanarini, Gunderson, Mariano, Schwartz, & Frankenburg, 1989),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외상 경험에 따른 경계선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순 외상적 경험 뿐만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외상 경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경계선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의 역할을 검증하였다. 자기개념의 중재효과, 부분매개효과의 입증은 복합외상경험이 있는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임상집단에서의 자기개념의 수준에 따른 치료방법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고 치료 계획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며, 비임상집단에서는 복합외상경험을 가진 경계선 성격특성의 진행적 상황에서 자기개념의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예방적 개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이 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경계선 성격장애의 발현시기가 성인기 초기이므로(DSM-IV, 1994) 대학생들의 이러한 특성을 잘 살펴볼 수는 있었다. 그러나 대학생 집단은 일단 높은 기능을 발휘하고, 적용 수준도 양호하며 같은 또래 사람들에 비해서도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부모의 보호를 받는 등 지지자원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일반화하여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학생이 아닌 비임상 집단이나 실제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 받은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자 대상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남녀 모두에게 적용시키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남녀 간의 차이를 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모두 자기보고식 연구방법을 통해 측정되었다.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은 정상군 집단보다 부모 모두가 더 과잉 간섭하는 동시에 더 방치하였으며 비 일관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고 지각하는 등(김상선, 2005) 인지적인 왜곡을 하는 경향이 있어(Gunderson, Mary & Zanarini, 1987)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 기대나 바람 직성에 따라 응답하였거나 혹은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혹은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 중 아동, 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과 자기개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 밖에도 김상선(2007)외는 경계선 성격 특성 성향자들이 부정적인 애착유형을 보이고 부모가 덜 일관적이고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고 지각하고 있다는 점을 검증하여 애착 유형 및 부모의 양육행동 및 태도와 경계선 성격특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박진미(2007) 외의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 특성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더 강한 정서경험을 하고 정서조절기술이 더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정서조절기술 또한 경계선 성격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복합외상경험 후 경계선 성격특성을 중재 및 매개하는 요인으로 애착유형, 부모의 양육행동 및 태도, 정서조절기술 등과 같은 변인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변인을 연구하여 그 변인들의 관계와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나래 (2008). 아동, 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이 정서조절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보배 (2002). 외상적 사건 및 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석만, 신민섭, 한수정, 김중술 (2002). 성인기 애착양식 원형과 내적 작동 모델 요소 간 관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93-124.
- 권윤주 (1995). 경계선 성격 소유자의 대인관계 불안 감소를 위한 집단사회사업적 중재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선 (2005).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자기 및 타인표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선, 신민섭, 이훈진 (2007).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자기 및 타인표상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 703-715.
- 김윤숙 (2005). 부적응 도식을 매개로 한 초기 부모 애착과 경계선 성격 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미, 서수균, 이훈진(2007)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 717-730.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성격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 217-231.
- 안현의 (2007). 복합외상(complex trauma)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05-119.

- 이순목 (1990). 공변량 구조분석. 성원사.
- 이훈진 (1997). 편집증과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성호 (2000). 경계선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최윤경 (2005). 경계선 정신병리와 자기 파괴성의 위험요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상환,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 295-271.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rntz, A. (1994).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challenge for cognitive-behavioral therap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419-430.
- Bradley, R., Jenei, J., EdM, Westen, D. (2005). Etiology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isentangling the contributions of intercorrelated antecedent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3(1), 24-31.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Ekstein, R. (1955). Vicissitudes of the "internal image" in the recovery of a borderline schizophrenic adolescent.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19, 86-92.
- Grinker, R. R., Werble, B., & Drye, R. C. (1968). The borderline syndrome. New York: Basic Books.
- Gunderson, J. G., Mary, C., & Zanarini, M. (1987). Current overview of the borderline diagnosi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8, 5-11.
- Helgeland, M. I., & Torgersen, S. (2004).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omprehensive Psychiatry*, 45(2) 138-147.
- Herman, J. L., Perry, J. C., & Van der Kolk, B. A. (1989). Childhood Trauma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6, 490-495.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 Stress*, 5, 377-391.
- Hurt, S. W., & Clarkin, J. F. (1990).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rototypic typology and the development of treatment manuals. *Psychiatric Annals*, 20, 13-18.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Linehan, M. M.,(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 Linehan, M. M., & Heard, H. L. (1990).

-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osts, course, and treatment outcomes. In N. E. Miller & K. M. Magruder (Eds), *Cost-effectiveness of psychotherapy: A guide for practitioners, reserarchers, and policymakers* (pp. 291-30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opez, M, & Heffer, R. (1998). Self-concept and soci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 victim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2, 183-195.
- Mahler, M. S. (1952). On Child psychosis and schizophrenia: Autistic and symbiotic infantile psychosis.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7, 289-305.
- Morey, L. C. (1988). Borderline personality: Search for core elements of the concept. Paper presented at the 96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Mew Orleans, LA.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Noble, D. (1951). A study of dreams in schizophrenia and alli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07, 612-616.
- Ogata, S., Silk, K. S., & Goodrich, S. (1990). The childhood experiences of the borderline patient, in Family Environment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Paris, J. (1993). The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light of the research on its long term outcom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8(suppl. 1), S28-S34.
- Rado, S. (1956). Schiaotypal organizaion: Preliminary report on a clinical study of schizophrenia. In S. Rado & G. E. Daniels(Eds). *Changing concepts of psychoanalytic medicine*. New York: Grune & Strantton.
- Shearer, S. L., Peters, C. P., Quaytman, M. S., & Ogaden, R. L. (1990). Frequency and correlates of childhood sexual and physical abuse histories in adult female borderline patients. *Am J Psychiatry*, 147, 214-216.
- Silk, K. R., Lee, S., Hill, E. M., & Lohr, N. E. (1995).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and severity of sexual abus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 1059-1064.
- Stone, M. H. (1990). The fate of borderline patients: Successful outcome and psychiatric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 Taylor, S., Asmundson, G. J. G., & Carleton, R. V. (2006). Simple versus complex PTSD: A cluster 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 459-472.
- Trull, T. J. (1995).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nonclinical young adults: 1. Identifica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7(1), 33-41.
- Trull, T. J. (2001).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and putative etiological correlat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3), 471-481.
- Van der Kolk, B. A (1987). Psychological trauma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Van der Kolk, B. A (1996). The complexity of adaptation to trauma: Self-regulation, stimulus discrimination and characterlogical development. In B. A. van der Kolk, A. C. McRarlane, & L. Weisaeth(Eds.), *Traumatic*

- stress: the effect of overwhelming experience on mind, body, and society(pp.182-213). New York: *Guildford Press*.
- Widiger, T. A., & Trull, T. J. (1993). Borderline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s. In P. B. Stuker & H. E. Adams (eds.). *Comprehensive hand book of psychopathology*(2nd ed., pp. 371-394). New York: *Plenum Press*.
- Weiss, M., Zelkowitz, P. Feldman, R. B., Vogel, J., Heyman, M., & Paris, J. (1996). Psychopathology in offspring of mother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pirot study.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1, 285-290.
- Western, D., Lodolph, P., Misle, B., Ruffins, S., & Block, J. (1990). Physical and sexual abuse in adolescent girl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 J Orthopsychiatry*, 60, 55-66.
- Wind, T., Silvern, L (1992) Type and extent of child abuse as predictors of adult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7, No. 4, 261-281.
- Zanarini, M. C., Gunderson, J. G., Marino, M. F., schwartz, E. O., & Frankenburg, F. R (1989). Childhood experiences of borderline patients. *Compr Psychiatry*, 30, 18-25.
- Zanarini, M. John G. Gunderson, M. Tracie Shea, Andrew E. Skodol, Thomas H. McGlashan, Leslie C. Morey, Robert L. Stout, Mary C. Carlos M. Grilo, John M. Oldham, and Martin B. Keller (2000). The Collaborative Longitudinal Personality Disorders Study: Development, Aims, Design, and Sample Characteristic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Vol. 14, No. 4, pp. 300-315.
- Zanarini, M. C., Yong, L., Frankenburg. F. R., Hennen, J., Reich, D. B., Marino, M. F., & Vujanoavic, A. A, (2002). Severity of reported childhood sexual abuse and its relationship to severity of borderline psychopathology and psychosocial impairment among borderline inpatient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0(6), 381-387.

1 차원고접수 : 2012. 5. 04.

심사통과접수 : 2012. 6. 17.

최종원고접수 : 2012. 6. 20.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 of self concept on relationship between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Ah-Lam Lee

Nam-jae Kim

Duksung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demonstrate relation between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hereinafter called "C-PTSD") experiences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and investigate a role of Self Concept between two variables. It was hypothesized that C-PTSD experience have an effect o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and self-concept moderate & mediate between two variables.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scale, self-concept scale, traumatic antecedents questionnaire were implemented to 650 woman's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PTSD experiences have effects o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Second, Self Concept was proved to have moderator effect between C-PTSD experiences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period. In addition, it was proved that as one had lower self concept, he was more influenced by C-PTSD experiences and showed more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Third, Self Concept was proved to have partial mediator effects between C-PTSD experiences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period. That is, while there were mediator effect of Self Concept as it was proved that C-PTSD experiences made Self Concept negative and the negative concept increase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the effect of C-PTSD experiences o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ppeared to be significant, which showed that Self Concept partially mediates between two variables.

Key words : C-PTS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elf-concept, moderate, mediate.